

SW과목 '구제 불가'? 실상은 자리 남아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졸업 필수요건인 휴머니티스칼리지(후마) 소프트웨어중점과목(SW 중점과목)의 비선호 과목에 자리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SW 중점과목을 듣기 위해 행정실에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학교는 졸업요건으로 후마 니타스칼리지(후마)나 단과대학에서 개설되는 SW중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수강신청 기간마다 SW중점과목 수강 신청 실패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는 막 학기 학생이 SW 중점과목 신청에 실패해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구제를 요청했지만 후마 행정실로부터 구제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취재 결과, 수강신청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SW중점과목의 자리는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후마는 SW 중점과목 부족 현상에 대비해 후마 내 모든 SW중점과목 정원을 지난 학기 1,455명에서 1,635명으로(한의대 전용 SW강의 제외) 약 200명 증원했다.

후마 행정실은 수강신청의 높은 난이도를 SW중점과목 간 선호도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마 행정실 조정을 직원은 “SW중점과목 중 선호 과목의 수강 신청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비선호 과목은 늘

수강 정정 종료 기간까지 좌석이 남는다”며 “이번에도 역시 ‘사이버 스페이스와 문화’, ‘인터넷과 미디어 콘텐츠 기술’ 등의 과목들이 자리가 남은 채로 수강신청이 끝났다”고 말했다.

후마 행정실은 올해 필수교과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강을 도와주는 구제 방법을 후마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후마는 졸업/진급 예정자(4~2학기, 초과 학기, 의학 계열 2~2학기)를 대상으로 필수교과에만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SW중점과목도 졸업/진급 예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SW강의의 자리가 찬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제를 시행한다.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졸업진단표와 재수강 연한 초과 과목 수강요청서를 제시된 구글 폼에 제출해야 한다.

조 직원은 “학생들이 특정 SW중점강의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도, 타 SW중점과목 수강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해드리지 않는다”며 “졸업 예정자 중 모든 SW과목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메일로 신청받아 구제해 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우려 하고 있고, 졸업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계속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졸업 직전이라고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특정 SW중점과목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진 말아달라”고 말했다.

가산점으로 '문과침공' 막는다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인문계열 학과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교차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자연계열 학생의 문과 선택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2024학년도 전국 평균 교차지원율은 28.6%로 2023학년도 대비 1.6%p가 상승해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우리학교 역시 2023학년도에 교차지원율 39%를 기록해 전국 대학 평균 교차지원율 27% 대비 10% 이상 높았다. 2022학년도 54.9%에 비해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높은 수치다.

2023학년도 수능위주(일반전형)에서 교차지원율이 50%가 넘는 인문계열 학과는 33개 학과 중 총 12개였다. 교차지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건축학과(인문)는 100%를 기록해 최종 등록자 전원이 과학탐구를 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자율전공공학부가 93.5%, 빅데이터응용학과가 92.3%로 그 뒤를 이었다.

높은 교차지원률에 김민경(빅데이터응용학) 교수는 “우리 학과의 경우 다른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이라며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원래 관심 있던 자연계열 학과와 연결해 응용 도메인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의 가산점 부여에 “자



2025학년도부터 인문계열 중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진=대학주보 DB)

연계열 학생들의 많은 유입은 인문계열 학생들의 유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문·이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인문계열(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한의예과-인문)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과목당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학문 특성을 고려해 교차지원율을 낮추기 위해 ‘인문’에 해당하는 학과 지원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경영, 경제학과와 같은 사회계열 학과는 제외된다. 입학처는 “인문계열 이외 학과들,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와 같은 사회계열 학과들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통합 성향을 띠기 때문에 순수 인문 성향을 가진 인문계열 학과 지원자들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처는 또한 “문·이과 통합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교차지원으로 문과 학생 표준점수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종의 ‘문과 침공’을 극복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차지원율을 줄이기 위해 자연계열 지원 시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문계열 지원 시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실제로 2023학년도에 인문계열 학과로 교차지원한 장정윤(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 2023) 씨는 “자연계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학과로 교차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이었다”며 “대학에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수업을 모두 들어보니 인문계열이 성향에 더 적합하다 생각해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인문계열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안은 오는 4월 말에, 202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는 오는 5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73기 신입기자 공개모집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4일(일) 서류제출 마감

지원자격

-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1학년, 2학년)
-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모집전형

- 취재기자(0명) :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미디어콘텐츠팀(0명) : 영상 제작 및 포토샵이 가능하거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 사진기자(0명) : 사진 포트폴리오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

선발일정

- 1차 서류제출 마감 : 3월 24일(일)
- 2차 면접평가 : 3월 26일(화) ~ 27일(수) 오후 6시 이후 (신문방송국 대면 면접)

※ 면접 시간은 응시자의 일정에 따라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 배너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대학주보 : media.khu.ac.kr/khunews)

문의

- 010-3185-1405 (이지수 편집장)
- 인스타그램 : @khunews_jubo
- 이메일 : khunews@khu.ac.kr
- 카카오톡 : 대학주보

활동혜택

- 기사 작성 시 원고료 지급
- 해외 취재 기회 제공
- 기자 명함 제공

